

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한마음’

전북자치도-14개 시군 경제부서장 긴급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수출·물가 안정대책 추진 논의 등

11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군 경제부서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비상정국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대내외적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전북 지역경제는 물가상승률

1.6%를 유지하고 고용률 전년 대비 평균 0.2% 상승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수출 감소와 기업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지난 9일 ‘민생안정대책반’을 구성하고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비상 가동, 물가대책상황반 가동 등 신속하고 다각적인 민생경제 지원체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가용 지원 범위에서 추가 공급하는 방안과 소비 촉진 축제 시기를 조성하는

방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일선 시군에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화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 △소비심리 제고를 위한 축제 및 자금지원 사업 조기 집행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한시적 인센티브 한도 상향 검토를 당부했다.

14개 시군은 도와 협력 추진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을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사업 추진 △도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한시 상향 등을 건의했다.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재 비상정국으로 인한 위기는 도-시군 간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노력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전북인권위원회 토론회 개최

AI기술의 발전이 가져 올 인권적 도전과제 논의

‘AI와 인권’ 주제… 인권 중심 AI 정책 방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인권선언(12월 10일)을 기념하여 11일 도청에서 ‘AI와 인권’을 주제로 전북인권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사회복지, 윤리적 활용, 그리고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사회적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여경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인공지능과 인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AI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분석을 통해 AI 기술 발전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AI 기술이 인권 침해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완옥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은 ‘AI와 사회복지’를 주제로 AI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AI 기술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AI 기술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강조했다.

안수용 전북연구원 박사는 ‘AI의 윤리적 활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AI 활용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AI 기술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권 중심의 AI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정호운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인권적 도전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이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SW융합이 바꾸는 전북 농생명 산업의 미래

‘제10회 전북 SW융합페어’ 개최… SW융합클러스터 2.0 성과보고회·우수사례 발표

도내 IT/SW기업 20개사 참가… 스마트팜 제품과 서비스 소개·배광수 감독 초청 강연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제10회 전북 SW융합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재)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도내 IT/SW기업과 유관기관, 지역 대학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페어는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사업 성과보고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비 137억원을 투입해 농생명 특화산업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지역 SW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721명, 전문인력 양성 339명, 사업화 매출 47억원, 해외 매출 27만 8천 달러를 기록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제10회 전북 SW융합페어’를 개최했다.

또한, 전북 스마트팜 비즈니스 플랫폼(www.jbcluster.kr)을 통해 스마트팜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분석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거래를 촉진해 데이터 융합 및 신사업 모델 발굴을 도모했다.

행사 전시장에는 이모션의 양계 전용 플랫폼인 ‘코코팜’, 동방이노베이션의 ‘노지 디지털 복합센터 시스템’ 등 도내 IT/SW기업과 SW융합클러스터 수혜기업 20개사가 참여해 농생명

특화 스마트팜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였다.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는 스튜디오 마라나타컴퍼니 대표 배광수 감독이 ‘SF영화로 만나는 미래 농업’이라는 주제로 D.N.A 기술(Data, Network, AI)이 농업에 미치는 혁신적인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어, 최별 PD는 ‘최PD의 융합공식’을 통해 방송과 농업의 융합 사례를 바탕으로 창의적 융합 모델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진행된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주)엔텍스의 농기계 사고 시 실시간 응급 알림 시스템인 ‘세이프티투오(Safe-TXO)’와 엘아이엔티의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솔루션 ‘팜코디’가 SW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 사례로 소개되며,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후속 사업으로 ‘전북·경북 지역 디지털 혁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2025~2029, 총사업비 300억원)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생명과 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미화 전북자치도 디지털산업과장은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전북 농생명 특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지역 특화산업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2015년 시작된 1단계 사업(2015~2019)을 통해 농생명 분야의 소프트웨어 융합 기반을 조성했으며, 2단계 사업(2020~2024)에서는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만호 기자

민주평통 4분기 전북지역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전북지역회의의 주요사업 논의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4분기 전북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간부 위원들은 2024년도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와 지

역협의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2025년 하반기 전북지역회의 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사무처 업무보고, △2024년 전북지역회의,지역협의회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2025년 전북지



역회의의 사업 계획 논의의 △기타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현만 부의장은 “2024년 한 해동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 사업들도 내실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탈북민 멘토링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차원의 통일 활동 사업계획을 발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내 지방의료원 재정 안정화 ‘총력’

전북자치도, 경영혁신지원금 총 79억5000만원 지원

군산·남원·진안의료원, 하반기 경영혁신 ‘우수등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지원금으로 총 79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도내 지방의료원의 경영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및 의료 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공공의료에 기여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하반기 평가에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이 모두 ‘우수등급’을 받으며 총 9억7,500만원(각 3억2,500만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 평가는 △추진 의지 △이행 과정의 적정성 △성과 달성도 △지원 효과성 등 4가지 항목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높은 성과를 낸 지방의료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진안군의료원은 상반기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으나, 하반기 실

적 평가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여 우수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상반기 평가에서도 도내 지방의료원 3곳에 국비 3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올해 확보한 총 국비는 39억7,500만원이며, 지방비와 매칭해 총 79억5,000만원을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내 의료원의 경영 안정과 필수의료 제공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우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와 의료개혁 등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요를 위해 헌신한 지방의료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모집	겨울을 보람있게! (1, 2월 동계과정)	환영
스피치기법, 웃음코칭, 리더십, 긴장해소, 시낭송, 면접스피치		
※ 남녀노소 누구나 등록가능, 저렴한 등록금, 매주 1회 야간수업		
	▷전담교수 주요경력 전주교육대학 겸임교수역임 전북대학교교양과목 담당교수역임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개발원 초빙교수 “행복한스피치” 등 4권저자 스피치칼럼리스트, KBS아침마당 3회 출연 평생교육사, 시낭송가, 작사가, 옹변지도사 스피치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모집기간 : 11월 20일 ~ 12월 31일까지(남, 녀 누구나 가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금암동)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효자동)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시)		
문의 : 010-7304-5665, 231-666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